

1335년 刊記『達磨大師觀心論』에 관한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 Research on *Dalma-Daesa Gwansimnon* with the Colophon of 1335

金 聖 洙 (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結 論 |
| 2. 「達磨大師觀心論」의 개요 | <참고문헌> |
| 3. 1335년 刊記「達磨大師觀心論一卷」의
形態書誌 | |

<초 록>

이 논문은 ‘百泉寺 소장, 1335년 刊記의 『達磨大師觀心論一卷』’에 관한 書誌的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觀心論』은 중국 禪宗의 初祖인 達磨大師가 說한 마음법(心法)에 관한 語錄이다. ‘마음은 萬法의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치기만(了心) 하면 부처의 경지(佛道)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핵심 요지로 하고 있다.

2) 百泉寺 所藏本の 跋文에서 확인된 바, 14세기의 高麗人들은 이 책을 ‘마음을 깨닫기 위한 禪宗의 핵심 綱要書’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3) 百泉寺本の 製冊에 있어서 그 假綴 방법이 ‘四綴紙捻’임을 확인하였다. 이 방법은 高麗 特有의 製冊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고려시대에 인쇄·제작되었음이 파악된다.

4) 이 책을 인쇄한 종이 紙質의 특징은 ‘① 종이두께: 0.06~0.12mm ; 홀장, ② 발촉수: 楮紙 17촉 등, ③ 발끈폭: 3.1cm 또는 3.5cm’ 등으로, 고려 後期 寺刹本の 그것과 同一하거나 類似하였다. 朝鮮初期 사찰본 종이의 특징과는 確然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책은 高麗時代 14世紀 後期에 出版되었을 것임을 糾明하였다.

要語: 『達磨大師觀心論』, 高麗 禪宗의 綱要書, 고려 종이의 紙質, 百泉寺 所藏本, 四綴紙捻

* 이 논문은 2017-2018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투고일: 2019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3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15일
서지학연구, 제77집, 5-26,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7.5]

<ABSTRACT>

This research is a bibliographical analysis on ‘Volume 1 of *Dalma-Daesa Gwansimmon* (達磨大師觀心論一卷) with the colophon of 1335 held at Baegcheonsa (百泉寺) Templ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Gwansimmon* is the analects of Dalma-Daesa, the progenitor of Zen Buddhism in China, about Buddhistic conscience and mentality.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since mind is the core of everything, people can reach a state of Buddha with spiritual awakening.

2) It was confirmed that according to the preface of *Gwansimmon* held at Baegcheonsa Temple, people in the Goryeo (高麗) Period put their definite confidence in this book as the core elements of Zen Buddhism to be spiritually enlightened.

3) It was also confirmed that *Gwansimmon* held at Baegcheonsa Temple was bound with four holes which represented the unique binding style in the Goryeo Period. It proves that this book was printed and produced in the Goryeo Period.

4) Papers of *Gwansimmon* demonstrated with such features as ① a thickness of 0.06~0.12mm and a single leaf, ② 17 base lines of paper manufacture, and ③ a base string width of 3.1cm or 3.5cm. These were the same as or similar to those features of temple editions published in the late Goryeo Period, but much different from those in the early Joseon (朝鮮) Period. Therefore this book was ascertained to be published in the 14th century in the Goryeo Period.

Key words: *Dalma-Daesa Gwansimmon*(達磨大師觀心論), Elements of Zen Buddhism in the Goryeo (高麗) Period, Quality of Papers Manufactured in the Goryeo Period, *Gwansimmon* held at Baegcheonsa(百泉寺) Temple, Paper Binding in Four Holes(四綴紙捻)

1. 서론

「達磨大師觀心論」은 菩提達磨¹⁾의 「二入四行論」과 함께 達摩語錄類²⁾에 분류되는 佛典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 「달마대사관심론」은 고려시대에 이미 크게 認知・活用되었고, 근대에 와서는 鏡虛禪師가 편찬한 「禪門撮要」 2권 1책³⁾의 上卷⁴⁾에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이 책은 現代에서도 한국불교 禪學의 지침서 중 하나이면서 ‘마음(心)을 살피는 방법에 대한 禪宗의 綱要書’로 존중되고 있다.⁵⁾

위와 같은 「觀心論」은 특히 1335年(元統3年 乙亥)에 간행된 高麗本 「達磨大師觀心論」의 跋文에서

禪은 곧 佛心(부처의 마음)이요 敎는 佛語(부처의 말씀)이니, 무릇 수행자들은 이 둘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버려서는(廢) 아니 된다. 마음과 입이 서로 應하여 이치를 가리어(稱) ‘단번에 깨달음(頓悟)’을 닦아 부처의 경지(佛地)에 들어가는 데에는 이 책(「達磨大師觀心論」)만한 것이 없다.⁶⁾

- 1) 菩提達磨(?~528): 西天 付法藏 第28祖. 중국 禪宗의 初祖. 南北朝 시대에 印度에서 중국 廣州에 도착, 梁武帝를 만났으나 契合하지 못하고, 嵩山 少林寺에서 9년 面壁함. “사람의 마음은 본래 淸淨하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禪法을 제자 2祖 慧可에게 전함. 達摩의 語錄으로 「二入四行論」이 있음. 19世紀末~20世紀初에 敦煌 막고굴 등에서 발굴된 佛典 중 ‘敦煌의 禪文獻’으로 「菩提達磨二入四行論長卷子」가 발견됨으로써 達摩語錄類가 재평가되고 있음.
- 2) 達摩語錄類: 「二入四行論」·「血脈論」·「悟性論」·「安心法門」·「絕觀論」·「無心論」·「觀心論」·「心經頌」 등이 있음. 이 자료들은 祖師禪(菩提達磨가 중국 등 東亞細亞에 傳承한 禪法을 가리킴)의 理致를 잘 나타내어 주는 佛典으로 간주된다. 그 중 『大正新修大藏經』 第48卷에 「小室六門」(No.2009: ‘① 第一門心經頌 ② 第二門破相論[觀心論] ③ 第三門二種入[二入四行論과 중복] ④ 第四門安心法門 ⑤ 第五門悟性論 ⑥ 血脈論’으로 수록된 불전들은 이미 널리 유통되어 온 자료들이다(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小室六門」, 『大正新修大藏經』 第48卷 諸宗部五 (東京: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昭和51(1976)), 365-376. 參考). 다만, 「心經頌」은 ‘達摩의 저술로는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日本傳來 「破相論」은 「觀心論」을 중국 北宗禪의 開祖인 大通禪秀(606~706)가 續撰한 것으로 추정된다. 「無心論一卷」은 19世紀末・20世紀初에 敦煌 寫本으로 출토되었다. 이 자료는 대영박물관 소장 <斯5,619號>로 影印(黃永武 編, 『敦煌寶藏』 第44卷(斯坦因(Stein) 5,613~6,051號) (서울: 驪江出版社, 1989), 22-26.)되었다. 즉, <斯5,619號>의 卷頭書名은 “無心論一卷”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書名의 바로 아래에 “釋菩提達磨製(석보리달마가 짓다)”라 하여 그 著者名을 明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 敦煌本 「無心論」은, 性徹 스님이 편찬한 「古鏡」에 編入되어, 그 내용이 活字化됨(退翁性徹 編譯, 『古鏡 / 曹溪禪宗 所依語錄集』 (합찬: 藏經閣, 佛紀2538. 723-742.)으로써 국내에 널리 유포되었다. 「絕觀論」은 師弟間의 문답 형식을 통하여 ‘禪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卽心無心’의 입장을 드러내고, ‘豁然大悟’의 頓悟를 설하고 있는 불전으로, 중국 禪宗의 牛頭法融(594-657: 四祖道信의 弟子)의 저작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아마도 이는, 「景德傳燈錄」 第4卷의 牛頭法融條에서 法融이 ‘無心・無念’을 說하고 있는 데에서 起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無心論」도 牛頭法融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 3) 「禪門撮要」 수록 佛典: 上卷; 「血脈論」, 「觀心論」, 「四行論」, 「最上乘論」. 下卷; 「修心訣」·「眞心直說」, 「勸修定慧結社文」, 「看話決疑論」, 「禪門寶藏錄」, 「禪門綱要集」.
- 4) 「禪門撮要」: 上卷은 1907년 청도 雲門寺에서 開刊됨. 下卷은 1908년 동래 梵魚寺에서 開刊. 上卷의 木版도 범어사로 옮겨 보관됨.
- 5) 「觀心論」에는 敦煌本과 韓國本, 日本傳來本(일본에 전해진 책은 「觀心破相論」 혹은 「破相論」 등으로 불리고 있다) 등이 있다. ‘達摩撰’ 혹은 ‘神秀撰’으로 전승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祖師들의 이름을 붙여서 신수 문하에서 만든 綱要書였다고 생각된다. 달마의 저술로 이야기 된 것은 상당히 後代의 일(사항)일 것이다. 그 내용은 北宗禪에서 重視된 ‘觀心’이라고 하는 修行法의 意義를 문답 형식을 취해 이야기 하고 있다(이부키 아츠시 著, 최연식 譯, 「중국 禪의 역사」 (서울: 씨・아이・알, 2011), 79-80.). 本考에서는 「1335年 刊記 「達磨大師觀心論一卷」에 대한 연구가 그 주된 觀點이기 때문에, 餘他의 「觀心論」에 관한 論說사항은 생략하기로 한다.

라 하여, ‘頓悟를 닦아 부처의 경지(佛地)로 들어가고자 하는 바’를 그 간행의 목적으로 明記할 정도로, 14세기 당시 불교계에서는 이 책을 ‘禪宗의 핵심 綱要書’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남 사천시 <百泉寺>에 소장되어 있는 ‘1335年 刊記 『達磨大師觀心論一卷』’은 2014년도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60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이 문화재에 대하여 2018년도에 ‘國家文化財 승격 지정 신청’이 있어, 同年 가을에 이 자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百泉寺 소장 高麗本 『達磨大師觀心論一卷』’에 대하여, 아래 본문에서는 이 책의 서지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특히 本書의 印刷時期 등을 정밀하게 糾明함으로써, 이 책의 稀貴性和 書誌學的 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韓國書誌學界와 共有하고자 한다.

2. 『達磨大師觀心論』의 개요

본 章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百泉寺 소장 『達磨大師觀心論一卷』’(이하 ‘觀心論’)으로 약칭함)의 개요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⁷⁾

『觀心論』의 本文을 각각의 文段으로 먼저 구분하고, 각 문단의 要語를 선정하면서, 해당 문단의 세부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⁸⁾

1) <그림 1>의 卷首題面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심론』의 제1문단은 <마음을 觀하는 한 가지 법(觀心一法)>으로서, 中國 禪宗의 第2祖인 慧可가 그 스승인 達磨大師에게 ‘佛道를 구할 때 어떤 法을 닦아야 가장 金요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장면으로 그 첫 문단이 전개되기 시작한다.⁹⁾

『관심론』의 제1문단은 ‘마음은 萬法의 근본이며, 일체의 모든 法은 오직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마음을 깨치기만(了心) 하면 만 가지 수행이 구비된다. 그러므로 알아차릴지니, 온갖 善과 惡은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생겼나니,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면 결국 마침내 옳지 못함’¹⁰⁾이라는 것이 그 要旨라 할 수 있다.¹¹⁾

6) 경남 사천 百泉寺 所藏 『達磨大師觀心論一卷』, 第16丈1面.

“禪是佛心 教是佛語, 凡修真出世者 不可偏廢也. 心口相應稱理 而修頓超佛地 莫若斯論也.”

7) 『達磨大師觀心論』과 恰似한 자료는, 『大正新修大藏經』 第48卷의 『小室六門』(No.2009)에 수록되어 있는 6편의 법어 중 <第2門 破相論>으로 수록되어 있는, 『破相論』(‘第二 破相論’, 『小室六門』, 『大正新修大藏經』 第48卷 (東京: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昭和51年(1976), 366-369.)이 있다. 이는 大通神秀의 續撰으로 보인다. 『小室六門』: 『心經頌』, 『破相論』, 『二種入』, 『安心法門』, 『悟性論』, 『血脈論』.

8) 『達磨大師觀心論』의 우리말 번역서가 2012년에 출판(妙峰 漢譯, 『達磨觀心論』 (서울: 비움과소통, 2012.))된 바 있다. 이 책은 현재 전자책(ebook)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번역도 매우 정확하므로, 本考에서는 그 번역의 전체는 止揚하고, 『관심론』 각 문단의 핵심만을 논급함으로써 그 개요에 가름하고자 한다.

9) 즉 『관심론』은 달마대사와 그 제자인 慧可가 ‘마음’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답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禪宗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마음’에 관한 사상적 이념을 확립한, 이른바 禪宗의 핵심 도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0) 百泉寺 所藏 『達磨大師觀心論一卷』, 第1丈1面4行14字 ~ 1丈1面6行9字, 1丈1面9行9字 ~ 1丈2面1行9字.
“心者萬法之根本 一切諸法 唯心所生 若能了心 萬行具備. … 告知, 一切善惡 皆由自心 心外別求 終無是處.”



<그림 1> 「達磨大師觀心論」의 卷首題面 및 卷末題面

2) 「관심론」의 제2문단¹²⁾은 <마음에는 淨法과 染法의 요인을 갖추었다(心具淨染緣起)>는 要旨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에는 ‘청정한 마음(淨心)’과 ‘물든 마음(染心)’ 두 가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淨心은 眞如의 마음(眞如之心)이요, 染心은 無明의 마음(無明之心)으로, 淨心으로 眞如를 깨달으면 涅槃樂을 증득할 것이다. 染心을 따라 惡業을 지으면 三界에 빠져 고통을 받게 되며, 이는 染心이 眞如의 본체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하고 있다.¹³⁾ 또한 「十地經」·「涅槃經」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모든 중생들은 모두가 佛性を 갖추었으되, 無明에 가려져서 解脫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¹⁴⁾ 그리하여 ‘온갖 착한 법(善法)에는 깨달음이 그 뿌리이며, 이 깨달음의 뿌리(覺根)에 의하여 모든 功德의 나무가 나타나고 드디어 涅槃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마음을

11) 第1文段: 觀心一法.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丈1面2行1字 ~ 1丈2面1行9字.

12)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의 製冊에서는 모두 ‘16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裝幀·製本 과정에서, ‘第2丈’과 ‘第3丈’의 張次가 倒置되어 製本되어 있음을 여기에 먼저 밝혀둔다. 이하의 張次 제시에서는 ‘第3丈’을 ‘第2張’으로 計上하여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第2丈’을 ‘第3張’으로 계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관심론」의 내용 전개를 우선하였기 때문이다.

13) 第2-1文段: 心具淨染緣起.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丈2面1行10字 ~ 第2張1面2行14字.

14) 第2-2文段: 眞心因妄不現.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2張2面2行15字 ~ 第2張1面6行10字.

觀하는 방법’이라고 說한다.¹⁵⁾

3) 「관심론」의 제3문단은, 먼저 ‘無明의 마음과 一切諸惡(惡法)의 뿌리는 三毒¹⁶⁾임을 밝히고,¹⁷⁾ 삼독이 六根에 맞추어 나타나면 이를 六賊¹⁸⁾이라고 하며, 모든 중생들은 이 삼독과 육적으로 인하여 心身을 미혹시킴으로써 生死에 떨어지고, 六趣¹⁹⁾를 헤매면서 온갖 고통을 받음’을 설한다.²⁰⁾

4) 「관심론」의 제4문단에서는, 삼독의 뿌리를 끊어야 비로소 중생의 윤회[衆流]를 설 수 있으므로, ‘해탈하려는 사람은 삼독을 三聚淨戒²¹⁾로 돌리고, 육적을 육바라밀(六波羅蜜)²²⁾로 전환시켜야 함’이라 하고,²³⁾ ‘三界²⁴⁾의 업보는 오직 마음에서 생긴 것이니, 마음만 깨달으면 삼계를 벗어남’을 설하고 있다.²⁵⁾

5) 「관심론」의 제5문단은, 중생은 미혹하기 때문에 육취가 나타나며, ‘나쁜 業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니, 마음을 능히 거두어 모든 惡을 여의면 육취(六道)의 윤회가 소멸되고 고통이 다하여 해탈을 이룸’을 설한다.²⁶⁾ 이어서 제6문단에서는 ‘眞如의 성품이 三毒에 덮이었으니, 三毒心만 제거하면 三阿僧祇²⁷⁾를 뛰어넘어 菩提道(解脫)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²⁸⁾ 그리고 제7문단에서는, ‘三聚淨戒로 三毒心을 능히 제어하고, 육바라밀로 六根을 밝힘으로써 저 언덕에 도달함(到彼岸)을 제시하면서, 三毒을 물리치기 위하여 戒定慧의 三種淨法을 지켜 드디어 佛道를 이룰 수 있음’을 설한다.²⁹⁾ 그리하여 제8문단에서는, 마침내 ‘마음이 깨끗하면 일체 중생이 淸淨해지고, 마침내 佛土

15) 第2-3文段: 善法以覺爲根者.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2張2面6行11字 ~ 第2張2面1行1字.

16) 三毒: 貪·瞋·癡의 3煩惱; 貪欲·瞋恚(진에: 자기 뜻에 어그러짐에 대하여 성내는 일)·愚癡. 중생을 해롭게 하는 惡의 근원이기 때문에 ‘三不善根’이라고도 한다. 三毒心: 貪心·瞋心·癡心.

17) 第3-1文段: 惡心以三毒爲根.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2張2面1行2字 ~ 第2張2面8行12字.

18) 六賊: 六識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들을 말하며, 육식이 六根을 드나들면서 온갖 경계에 물들어 惡業을 이룸으로써 眞如의 바탕을 장애(障礙)하는 까닭에 ‘육적’이라 칭한다.

19) 六趣: 중생이 業에 의하여 윤회하는 6種의 세계, 즉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天上의 세계.

20) 第3-2文段: 正明六賊(六賊의 정체를 밝힘).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2張2面1行2字 ~ 第3張1面5行10字.

21) 三聚淨戒: 戒律의 근본 취지를 세 가지로 묶은 것으로, ①聚善法戒(착한 法은 모두 행하라), ②聚衆生戒(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라), ③聚律儀戒(계법을 잘 지키라).

22) 六波羅蜜: 彼岸(涅槃)에 이르기 위하여 보살이 수행하는 大行 6가지, 즉 ‘普施·持戒·忍辱·精進·禪定·智慧’.

23) 第4-1文段: 斷三毒根(三毒의 뿌리를 끊어라).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3張1面5行11字 ~ 第3張1面8行2字.

24) 三界: 欲界, 色界, 無色界. 三界은 곧 三毒이며, 이 삼독에 의하여 모든 악을 지어내는 까닭에 業報가 이루어져 六趣에 윤회하기 때문에 三界라 이른다.

25) 第4-2文段: 了出三界(깨달으면 三界를 벗어남).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3張1面8行3字 ~ 第3張2面5行7字.

26) 第5文段: 迷現六趣(미혹하여 육취가 나타난다).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3張2面5行8字 ~ 第4丈1面7行7字.

27) 阿僧祇: 不可數. 큰 수요의 한 단위. 흔히 ‘阿僧祇劫 以前에’라 함은 ‘恒河沙처럼 수로 헤일 수도 없이 까마득하게 많은 겁 이전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28) 第6文段: 除三毒則解脫(삼독을 제거하면 바로 해탈).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4丈1面7行8字 ~ 第4丈2面9行16字.

29) 第7文段: 明三聚六波羅蜜(삼취정계와 육바라밀을 밝히다).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4丈1面7行8字 ~ 第6丈1面2行14字.

까지 淸淨해짐'을 說하고 있다.³⁰⁾

6) 「관심론」의 제9문단에서는 六道의 이치를 거듭 밝히면서 ‘육바라밀은 배(船筏)와 같은 것이어서, 이를 닦으면 중생을 운반하여 저 언덕에 이르도록(到彼岸) 하는 까닭에 六道라고 함’을 밝히고 있다.³¹⁾ 「관심론」의 제10문단에서는 ‘석가여래는 보살로 계실 때 眞如의 청정한 ‘法의 젖(法乳)’을 마시고 비로소 佛道を 이루었는데, 이는 비로자나불이 三聚淨戒와 六波羅蜜의 미묘한 法乳를 흘려 내리고 있음에, 해탈을 구하는 일체중생은 누구나 그 법유를 마시기만 하면 道를 이룰 수 있음’을 설하고 있다.³²⁾ 바로 이러한 제9~10문단은, ‘해탈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삼취정계와 육바라밀을 修行하기만 하면 마침내 道를 얻을 수 있음’을 確言하고 있다.

「관심론」에서는 위와 같은 제10문단까지가 마음을 깨달아 佛道を 이루는 것에 대한 핵심 논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의 제11문단부터 24문단까지는 禮拜와 修行의 實際에서 쌓아가는 功德 등에 관한 각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7) 「관심론」의 제11문단은 <절 짓는 법>에 관한 것으로, 중생들이 ‘伽藍을 지을 때에는 三毒을 제거하고 六根을 맑히며 心身の 内外가 淸淨할 것’을 당부한다.³³⁾ 제12문단은 <佛像 造成하는 법>으로, ‘身(爐)·法(火)·慧(工匠) 및 三聚淨戒·六波羅蜜을 거푸집(摸樣) 삼아, 眞如의 佛性を 녹여 戒律의 거푸집 속에 넣어 참모습(眞容)을 조성하라’고 당부한다.³⁴⁾ 제13문단은 <다섯 가지 향 피우는 법>으로, 이는 ‘無爲正法の 香으로 無明의 惡業을 모두 끊어 소멸하게 하고, 解脫知見으로 나아가게 함’이라 설한다.³⁵⁾ 제14문단은 <꽃을 흘리는 법>으로, 이는 ‘眞如의 性品을 두루 다스려 장엄을 베풀게 함’이다.³⁶⁾ 제15문단은 <등불 밝히는 법>으로, ‘깨달음의 등(覺燈)으로 無明의 어두움을 비추어 무찌르기(炤破) 위험’을 설하고 있다.³⁷⁾ 제16문단은 <道를 행하는 법>으로, ‘六時行道³⁸⁾와 遶塔(탑돌이)³⁹⁾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마음속으로 行을 닦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⁴⁰⁾ 제17문단은 <齋戒를 지키는 법>으로, ‘몸과 마음을 닦아 맑혀야 함’을 설하고 있다.⁴¹⁾ 제18문단은 <供養하는

30) 第8文段: 心.淨則佛土淨(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깨끗하다).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6丈1面2行15字 ~ 第6丈1面6行7字.

31) 第9文段: 重明六道(육도의 이치를 거듭 밝힘).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6丈1面6行8字 ~ 第6丈2面9行2字.

32) 第10文段: 明法乳(法의 젖을 밝히다).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6丈2面9行3字 ~ 第7丈2面8行8字.

33) 第11文段: 修造聖殿.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8丈1面8行5字 ~ 第8丈1面8行4字.

34) 第12文段: 鑄寫佛像.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8丈1面8行5字 ~ 第8丈2面7行6字.

35) 第13文段: 五分香.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8丈2面7行7字 ~ 第9丈1面9行11字.

36) 第14文段: 散花.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9丈1面9行12字 ~ 第9丈2面8行16字.

37) 第15文段: 明燈.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9丈2面8行17字 ~ 第10丈2面2行11字.

38) 六時行道: 여섯 차례 道를 행한다 함은 六根 안에서 항상 佛道を 행한다는 뜻이니, 부처(佛)란 깨달음(覺)이니 곧 온갖 깨닫는 行을 닦아 六根을 조복 받아 청정한 六情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이다.

39) 遶塔: 탑은 곧 몸과 마음(身心)이니, 항상 깨닫는 지혜(覺慧)로 몸과 마음을 돌며, 생각생각 끊이지 않는 것을 탑돌이(遶塔)이라 한다. 과거의 성현들도 이 道를 행하여 涅槃을 얻었다.

40) 第16文段: 行道.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0丈2面2行12字 ~ 第11丈1面2行4字.

41) 第17文段: 齋戒.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1丈1面2行5字 ~ 第11丈1面6行4字.

법>으로, ‘法喜食 禪悅食 念食 願食 解脫食’을 설명하며 이 다섯 가지 깨끗한 음식이 齋食임을 밝히고 있다.⁴²⁾ 제19문단은 <斷食하는 법>으로, ‘無明惡業의 음식을 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⁴³⁾ 제20문단은 <禮拜하는 법>으로, ‘참성품(眞性)을 공경하고 無明을 굴복시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닦아 맑혀야 함’을 설하고 있다.⁴⁴⁾ 제21문단은 <목욕하는 법>으로, ‘三毒無明의 때(垢)를 제거하여야 함’을 설하고 있다.⁴⁵⁾ 제22문단은 <念佛하는 법>으로, 염불은 바른 생각(正念)을 닦는 것이니 ‘念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라 깨달음을 행하는 문(覺行門)’임을 강조하고 있다.⁴⁶⁾ 제23문단은 <형상을 모아 마음으로 돌아감(會相歸心)>으로, ‘凡所有相 皆是虛妄’ 등의 ‘金剛經’ 四句偈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세계의 형상(相)은 모두 허망한 것임을 指摘하고, ‘오직 마음만이 世間을 벗어나는 문턱이며 解脫의 나루터 임’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깨달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⁴⁷⁾ 그리하여 제24문단에서는 <망령되이 佛像과 절을 조성하지 말라>는 것으로, 헛되이 공덕삼아 佛像과 塔을 세울 것이 아니라 ‘無相의 法’인 마음공부에 주목할 것을 설하고 있다.⁴⁸⁾

8) 「관심론」의 제25문단은 <마음을 觀하도록 당부하는 말씀을 맺음>하는 것으로, 「관심론」의 大尾를 장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만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비추어서(攝心內照) 覺觀을 항상 밝게 하라. 삼독의 마음(三毒心)을 끊어 영원히 녹여 없애버리고, 六賊의 문을 닫아 다시 침노치 못하게 하면, 항하사(恒河沙) 수효의 공덕과 가지가지 장엄과 한량없는 법문을 낱알이 성취할 것이니라. 범부를 뛰어 넘어 썅菓를 증득하는 것이 눈 깜박할 사이라, 멀지 않아서 깨달음이 잠깐 사이에 있거늘, 어찌 흰머리가 되기를 기다리리오? 참된 법문(眞門)은 그윽하고 깊으니, 어찌 다 진술하리오. 마음 觀하는 법을 간략하게 설하여 그 한 부분만을 밝혀 본 것이니라.⁴⁹⁾

라 하여, 이 문단은 ‘마음의 내면을 비추어서 覺觀을 밝게 하고, 三毒心을 없애고 육바라밀(六波羅蜜)을 행하면서 부지런히 修行하여, 마음을 깨달을 것을 당부하고 있음’⁵⁰⁾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은 「達磨大師觀心論」은 ‘마음을 깨닫기(了心)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비추어서 그 覺觀을 밝게 하고, 貪·瞋·癡의 三毒心을 없애기 위해서는 三毒을 三聚淨戒로

42) 第18文段: 齋食.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1丈1面6行5字 ~ 第11丈2面3行13字.

43) 第19文段: 斷食.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1丈2面3行14字 ~ 第11丈2面8行8字.

44) 第20文段: 禮拜.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1丈2面8行9字 ~ 第12丈2面1行11字.

45) 第21文段: 洗浴.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2丈2面1行12字 ~ 第14丈1面3行6字.

46) 第22文段: 明念佛.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4丈1面3行7字 ~ 第14丈2面6行6字.

47) 第23文段: 會相歸心.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4丈2面6行7字 ~ 第15丈1面4行8字.

48) 第24文段: 安營佛像塔廟.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5丈1面4行9字 ~ 第15丈2面1行4字. 아마도 이 문단은 「관심론」이 만들어진 時點, 즉 隋煬帝 이후 당시 중국에서 크게 유행한 ‘佛像을 조성하고 塔寺를 건축하는 등 이른바 形像佛教에 대한 강력한 경계로 보인다. 따라서 제24문단은, 功德을 위하여 佛像이나 절 및 탑 등을 세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신의 내부로 回歸시켜 마음공부에 주력하라’는 再次的 當付라 볼 수 있다.

49) 「達磨大師觀心論」 第25文段: 結觀歸心.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 第15丈2面1行5字 ~ 第15丈2面5行11字.

50) 이는, 제23문단에서, ‘마음은 세간을 벗어나는 문턱이요, 마음은 해탈하는 나루터(心爲出世之門戶 心是解脫之關津)’라는 문장을 이어 받아 결론적으로 당부하는 맺음말(結言)임을 알 수 있다.

돌리고, 六賊을 육바라밀(六波羅蜜)로 전환시키면, 곧바로 佛道를 이룰 수 있음'이 그 핵심 要旨라 할 수 있다.⁵¹⁾

3. 1335年 刊記「達磨大師觀心論一卷」의 形態書誌

본 章에서는 백천사 소장 「達磨大師觀心論一卷」에 관한 形態書誌 사항을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이 책의 형태서지적인 특징 및 가치 등을 차례로 논술하고자 한다.

<표 1> 백천사 소장 「達磨大師觀心論一卷」의 形態書誌

-
- 卷首題 : 達磨大師觀心論一卷
 - 卷末題 : 達磨大師觀心論一卷
 - 版心題 : 觀心論
 - 저자사항 : [達磨大師] ; [大通神秀]
 - 판사항 : 木板本
 - 간행사항 : 元統3年乙亥(1335)正月 日 鷄林府開板⁵²⁾
 - 형태사항 : 1冊. 四周單邊, 半郭 19.5×13.9cm, 無界, 半葉 9行17字, 白口, 上 下向黑魚尾.
규격(책크기): 26.5×16.2cm.
 - 張 數 : 16丈(本文: 15丈, 跋文 및 刊行事項: 1丈)
 - 製冊形態 : 假綴; 四綴紙捻
 - 주기사항 :
 - ① 刊記: '元統三年乙亥正月 日 鷄林府開板'
 - ② 無表紙, 原書의 裝幀 형태는 '線裝(五針眼)'으로 推定. 後代 腹藏時 表紙·綴絲가 除去된 것으로 보임.
 - ③ 紙捻: 四綴紙捻; 高麗 後期(13世紀 以後) 線裝本의 特性
 - ④ 版心: 魚尾의 형태: '上 下向黑魚尾'; 13世紀의 板式 특징.
張次 表示: '〇丈' 表記; 13世紀의 板式 특징.
 - ⑤ 避諱: 高麗 定宗(945-949 在位)의 諱 '堯'字가 포함된 '燒'·'饒'·'遼'字의 마지막 획 缺割 回避.
 - 종이두께 등 : ① 第15丈 跋文·刊記面: 종이두께: 0.07mm(格紙: 종이 上端), 발촉수: 17촉, 발끈 폭: 3.4cm
 - ② 第1丈 卷頭題面: 종이두께 : 0.13mm(藁精紙 ; 종이 上端), 발 촉수: 13촉, 발끈폭: 不明.
 - 도서 구성 : '達磨大師觀心論 1卷' 本文 15丈, 跋文 및 刊記 1丈.
-

51) 敷衍하면, 「達磨大師觀心論」은 祖師禪의 端初를 論한 語錄이라 할 수 있다. 六祖惠能의 祖師禪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의 저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祖師禪의 근본 문제인 '깨달음과 닦음(悟修)의 문제'에 있어서는 頓悟를 논술하기 이전에, 중생에게 드리워져 있는 無明의 장막(帳幕)을 우선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즉 三毒心과 六賊을 제거하기 위한 三聚淨戒와 六波羅蜜의 修行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52) 本書와 同一한 刊本인 1335년 雞林府에서 開板한 「달마대사관심론」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밖에 조선시대에 간행된 「관심론」은, 1570년(宣祖 3) 無等山 安心寺에서 개판한 것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1580년(宣祖 13) 開心寺에서 간행된 것이 있고, 1861년(哲宗 12) 寶蓋山 奉恩寺에서 간행한 책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확인된다. 이외에도 현대에 와서 '1975년 영인본'이 <동국대도서관>과 <명지대 도서관>에서도 확인된다.

1) 이 책의 製冊 형태는 표지가 없는 假綴 상태이다. 아마도 腹藏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⁵³⁾ 책의 크기는 ‘세로 26.5cm, 가로 16.2cm’이며, 1冊(1卷)의 木版本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책의 상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紙捻(紙釘)의 방법을 활용하여 四綴紙捻⁵⁴⁾의 형식으로 假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達磨大師觀心論」 책 뒷면(後面)의 假綴의 四綴紙捻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假綴된 紙捻은 꼬아서 만든 종이끈(紙釘)을 송곳으로 뚫은 누적된 종이에 박고, 그 끝의 부분을 ‘나비의 날개’처럼 가지런하게 펴고 이를 직각으로 눌러서, 누적된 전체 책종이들을 고정시킴으로써, 假綴의 기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로 이와 같은 四綴紙捻은 高麗後期 線裝本에 나타나는 特有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朝鮮時代의 선장본은 製綴할 때 일반적으로 ‘二綴紙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천사 소장 『達磨大師觀心論一卷』’은 그 製冊의 내부 형태에서부터 ‘四綴紙捻’이라는 高麗本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 우선적으로 파악된다.

2)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의 卷首題와 卷末題는 공히 “達磨大師觀心論一卷”이라고 인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書名에 ‘達磨大師’라는 人名을 特記한 부분과 書名의 末尾에 ‘一卷’이라

53) 즉, 원래의 表紙가 제거되고 製冊 때에 사용되는 製綴 용도의 굵은 실끈(綴絲)도 또한 제거된 상태이다.

54) 四綴紙捻: 高麗本의 線裝本을 假製本할 때, 먼저 인쇄된 각 장의 종이들을 중첩·누적시킨 상태에서, 책의 卷末 부분을 上部로 뒤집어 놓고, 그 왼쪽 가장자리에 송곳으로 네 군데 구멍을 뚫고, 그 자리에 꼬아서 만든 종이못(紙釘)을 꽂아 넣은 경우를 일컫음. 이 책의 경우, 四綴紙捻의 간격은 각 6.5cm 정도임이 확인됨. 위와 같은 四綴紙捻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용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서지학계에서 정식으로 보고되거나 발표된 바는 보이지 않으나, 高麗本에 대한 실제 현장조사에서 몇몇 사례를 주목한 바 있다. 향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고 그 卷數까지 明示하여 記載한 사항이 이채롭다고 볼 수 있다. 書名 사항에 그 卷數까지 記入하는 방식은 중국 宋本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版心題는 “觀心論”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 책의 ‘저자사항’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책의 내용상으로 보면, 達磨大師의 語錄類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일단 ‘達磨大師’라고 表記할 필요가 있다.⁵⁵⁾

4) 이 책의 간행 시기 및 장소는, <그림 3> 및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卷末의 跋文 및 간행사항에서 ‘元統三年乙亥(1335) 正月 日 鷄林府開板’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1335年’에 지금의 경주 지역인 ‘鷄林府’에서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책은 慶尙道 按廉使인 ‘金岡(김경)’이 그 간행의 총괄적인 主導者 및 誓願者가 되고, 雞林府의 ‘權知, 尹知’ 및 蔚州副使 ‘盧愼’의 3인이 간행의 同願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幹善으로는 堀玄寺의 住持인 ‘性宏’과 戶長인 ‘金玆’ 2인이 관여하였고, 別色으로는 記官인 ‘崔下’이 참여하였으며, 刻手者로는 ‘法玄, 甫英’이라는 2인의 刻手僧이 그 勞苦를 다함으로써, 이 책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禪宗 사찰의 수행자나 승려들이 主管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雞林府 官衙의 고위 관료를 비롯한 在家信者들이 당시 禪宗의 핵심 綱要書인 「達磨大師觀心論」의 板刻을 合心하여 誓願하고 그 主催가 되어 직접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意義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14세기 前期에 慶州府에서 간행된 「達磨大師觀心論」은 出家者 뿐만 아니라 在家修行者(俗人)들에게도 대규모로 流布하기 위하여 大量印刷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추정할 수 있다.

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책 形態書誌의 형태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책의 版式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5cm, 가로 13.9cm’이며, 계선은 없고(無界), 9行17字로 배열되어 있다. 版心은 ‘上下白口’에 ‘上 下向黑魚尾’로 확인된다.

② 종이의 紙質은, 총 16張(丈) 중에서, ‘벗짚(귀리짚)’이 섞인 닥종이(藁精紙)’가 5장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11장은 순수 닥종이(楮紙)로 구성되어 있다.⁵⁶⁾

55) 그러나 현대 불교학의 연구에 의하면, 이 책의 저자는 北宗禪의 開祖라 할 수 있는 ‘大通神秀’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觀心論」에는 敦煌本과 韓國本 그리고 日本傳來本(『破相論』: 脚註 7)의 註文, 參照) 등이 있다. ‘達磨 撰’ 혹은 ‘神秀 撰’으로 전승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祖師들의 이름을 붙여서 神秀 門下에서 만든 綱要書였다고 생각된다. 達磨의 저술로 이야기 된 것은 상당히 後代의 일일 것이다. 그 내용은 北宗禪에서 重視된 ‘觀心’이라고 하는 수행법의 意義를 問答 형식을 취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이부키 아츠시 著, 최연식 譯, 『중국禪의 역사』 (서울: 씨·아이·알, 2011), 79-80.). ② 「觀心論」은, 達磨의 저술이 아니고, 大通神秀의 작품임은 海內사판본 『一切經音義』에서 분명해졌다(『一切經音義』 卷第100, 『大正藏』 44, p.931c.). [여기에서] “觀心論, 大通神秀作.”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達磨의 것으로 誤認된 朝鮮에서는 「禪門撮要」, 「법해보벌」 등에 실려 南宗禪의 여러 선사의 작품과 어개를 나란히 하여 전해졌다(신규탁, 『圭峰宗密과 法性敎學』 (서울: 올리브그린, 2013), 272-273.). ③ 최근 돈황자료의 출토로 인해 北宗禪의 禪文獻이 새롭게 발견되어, 北宗禪의 禪思想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神秀의 저술로 간주되는 것은 「觀心論」과 「秀禪師勸善文」 등이다. 神秀의 禪思想을 알 수 있는 기본 자료는 유일한 저술인 「관심론」이다. 종래 「觀心論」은, 「破相論」이라는 이름으로 「禪門撮要」나 「小室六門」, 「達磨大師三論」 등에 수록되어 있어서 達磨語錄의 하나로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唐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神秀의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스승 弘忍의 「수심요론」 등에 의거하여 北宗禪의 入門書로 만든 觀心の 禪法을 설한 것(鄭性本, 『禪의 역사와 사상』 (서울: 불교시대사, 1999), 242-243.)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達磨大師觀心論」의 卷末 跋文 및 刊行事項⁵⁷⁾

<표 2> 「達磨大師觀心論」의 卷末 跋文 및 刊行事項 表記

禪是佛心 教是佛語 凡修真出世者不 / 可偏廢也 心口相應稱理而修頓超佛 / 地莫若斯論也 是以予與信士兩三同 / 堅願幢募工彫板印施無窮者 ⁵⁸⁾
元統三年乙亥正月 日 雞林府開板
慶尙道 按兼使 中顯大夫 監察執義 金罔
同願 雞林府 權知 尹知 蔚州副使 盧愼
幹善 堀玄寺 住持 通玄普應大師 性宏
戶長 金珍
別色 記官 崔卞
刻手僧 法玄 甫英

- 56) '楮紙와 藁精紙가 혼합되어 있다'는 사항은, 이 책은 大量으로 印刷된 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佛教國家였던 고려시대의 佛典 간행에는 질 좋은 楮紙만으로 인쇄하는 것이 당연한데, 인쇄용 楮紙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藁精紙로 充當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7) 卷末 간행사항의表記에 있어서 特異한 점은, 왼쪽 사진의 左側에 나타나는 '慶尙道 按兼使 中顯大夫 監察執義 金罔'이 간행 관여자 중 가장 上位의 직위 및 직책의 인물이며, '刻手僧 法玄 甫英'이 가장 下位의 간행 관여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행관련 사항'을 위와 같이 본문에 移記하거나 表記할 때에는, 아래 <표 2>의 記錄처럼, <그림 3>의 가장 左側에 기입된 上位 職級 및 職位者부터 右側의 下位者의 순서대로 옮겨 기록하는 것이 合當하다.
- 58) 跋文 翻譯: "禪은 부처의 마음(佛心)이요 教는 부처의 말씀(佛語)이니, 무릇 진정한 수행자(眞出世者)는 이들 중 하나도 폐(廢)할 수 없다.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여 이치(理)를 가리어(稱) '대변에 깨달음(頓悟)'을 닦아 부처의 경지(佛地)에 들어가는 데에는 이 책(論: 達磨大師觀心論)만 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필자(予: 跋文을 쓴 사람)와 信者(信士) 두 세 명이 함께 굳은 서원의 깃발(堅願幢)로[을 들고], 工人(刻字匠)를 모집하여 板刻(彫

③ 이 책 판본의 첫 번째 특징은 그 版心에 보이는 장차(張次)표시는, ‘張’이라는 글자 대신에, ‘丈’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특히 注目된다. 이 사항은 高麗 初雕大藏經 木版에 나타나는 특징과 同一하다.

④ 이 책 판본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 본문의 인쇄에서 나타나는 避諱 상황을 살펴보면, 高麗의 第3代 王인 定宗(945~949 在位)의 諱인 ‘堯’字가 포함된, ① ‘燒’(第9丈1面6行8字, 第9丈1面8行9字), ② ‘饒’(第9丈2面1行13字), ③ ‘遼’(第10丈2面6行2字, 第10丈2面6行11字, 第10丈2面9行10字)字, 6字는 각 글자의 마지막 劃을 缺劃避諱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⁵⁹⁾



<그림 4> 「達磨大師觀心論」 본문에 보이는 定宗의 諱 ‘堯’字의 避諱 與否 사례

⑤ <그림 5>의 右側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의 본문 중 第2張(3丈) 8~9행의 上部 중 ‘體’字를 비롯한 16字 정도를 목판에서 파내고, 이들 글자를 補刻·埋木한 상태로 인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인쇄상태는, 인쇄된 각 글자의 劃이 다소 磨耗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목판 板刻(1335) 이후 여러 차례 대량인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인쇄된, 이른바 後刷本일 가능성이 濃厚하다. 그러나 이 책 製冊에 있어서 ‘高麗後期 特有的 四綴紙捻’의 형태로 보아, 그 인쇄 및 製冊의 시기는 ‘14世紀 後半의 高麗時代’라고 보는 것이 合當할 것이다.

⑥ 이 책을 인쇄한 바탕종이 각 장의 종이두께는 ‘楮紙 0.06~0.12mm, 蕁精紙 平均 0.13mm, 糝紙’이며, 종이의 발촉수(3cm當)는 ‘楮紙 17촉, 蕁精紙는 13촉’으로 확인된다. 발근폭은, 楮紙와 蕁精紙를 막론하고, ‘3.1cm’ 또는 ‘3.4cm’로 나타나고 있다. 이 책 각 張의 종이두께와 발촉수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이 인쇄된 종이는 ‘蕁精紙 5張’ 및 ‘楮紙 11張’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총 16張의 종이로 1책이 구성되어 있다.

板)하고 인쇄하니, 부디 이 책(인쇄본)이 널리 전하여져서 무궁(印施無窮)할 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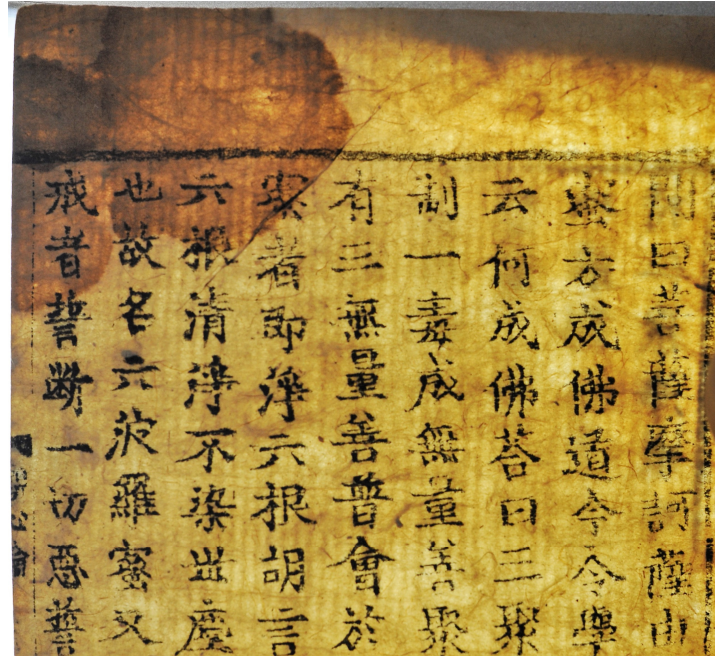
59) 단 <그림 4>의 右面인 ‘第8丈2面7行7字’의 ‘燒’字는 결획피회를 하지 않은 원래의 글자 형태를 보이고 있음.



<그림 5> 「達磨大師觀心論」本文 第2張(3丈) 2面(右面) 8~9行 上部的 補刻·埋木한 사례

<표 3> 百泉寺 所藏「達磨大師觀心論一卷」각 丈의 종이 두께·발촉수·발끈폭 등의 데이터

張次	紙質	종이두께 (上端)	종이두께 (下端)	발촉수	발촉방향	발끈폭	비고
第1丈	藥精紙	0.13mm	0.10mm	13촉	세로	不明	홀장
第2張 (第3丈)	藥精紙	0.10mm	0.14mm	13촉	가로	不明	홀장
第3張 (第2丈)	楮紙	0.10mm	0.08~0.10mm	不明	가로	不明	홀장 종이두께 不均整
第4丈	楮紙	0.10mm	0.12mm	不明	가로	不明	홀장
第5丈	藥精紙	0.10mm	0.08~0.12mm	13촉	세로	3.4cm	홀장
第6丈	楮紙	0.09mm	0.07~0.09mm	13촉	가로	3.1cm	홀장
第7丈	藥精紙	0.10mm	0.10mm	13촉	세로	不明	홀장
第8丈	楮紙	0.08mm	0.08mm	13촉	가로	3.1cm	홀장
第9丈	楮紙	0.12mm	0.09~0.11mm	13촉	가로	3.1cm	홀장 종이두께 不均整
第10丈	藥精紙	0.13mm	0.14~0.16mm	13촉	세로	不明	홀장
第11丈	楮紙	0.06mm	0.08mm	17촉	가로	3.4cm	홀장
第12丈	楮紙	0.12mm	0.12mm	17촉	가로	3.1cm	홀장
第13丈	楮紙	0.10mm	0.08~0.14mm	17촉	가로	3.4cm	홀장 楮紙 品質 卓越
第14丈	楮紙	0.07mm	0.08~0.11mm	17촉	가로	3.1cm	홀장 楮紙 品質 卓越
第15丈	楮紙	0.10mm	0.11mm	17촉	가로	3.4cm	홀장
第16丈	楮紙	0.07mm	0.08~0.12mm	17촉	가로	3.4cm	홀장



<그림 6> 「達磨大師觀心論一卷」 第5丈의 藁精紙(홀장)의 文樣 및 발촉수(13촉)의 형태



<그림 7> 「達磨大師觀心論一卷」 第15丈 2面 바탕종이(楮紙, 홀장)의 文樣·발촉·발끈폭의 형태

그 중 ‘第1~2, 5, 7, 10 丈’은 ‘벗짚이 섞인 닥종이(藁精紙)’이고, 나머지는 모두 순수 닥종이(楮紙)이다. 그 중 ‘第1~2, 5, 7, 10 丈’은 藁精紙이고, 나머지는 모두 순수 닥종이(楮紙)이다.

한편 <그림 6> 및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의 藁精紙들은 모두 ‘홀장’의 종이이면서 ‘13촉’의 발촉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 종이의 두께는 ‘0.10~0.16mm’ 정도에 이르러 상당히 두툼한 종이임을 알 수 있다.⁶⁰⁾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을 인쇄한 바탕종이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楮紙들은 모두 ‘홀장’의 종이이면서 ‘17촉’의 발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종이의 두께는 ‘0.06~0.12mm’ 정도이기 때문에 홀장의 종이로서는 좀 두꺼운 종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楮紙들의 발끈폭은 ‘3.1cm’ 또는 ‘3.4cm’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론』의 바탕종이(楮紙)는 그 발촉수 및 종이두께의 사항에서 일단 고려시대 종이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심론』을 간행한 바탕종이에 대한 문제를 더욱 상세하게 考究하기 위하여, 이 책을 비롯하여 고려 鎮兵大藏經(初雕大藏經)을 비롯한 高麗後期 및 朝鮮初期 木版本의 종이두께 등의 사항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천사 소장 『達磨大師觀心論一卷』’의 종이두께는 ‘楮紙 0.06~0.12mm, 홀장. 藁精紙 0.10~0.16mm, 홀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高麗에서 12~14世紀의 단위 사찰 간행 佛書(연번 3,4,6,7)들의 종이두께는 모두 ‘0.06mm, 홀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11세기에 간행된 鎮兵大藏經(연번 5)의 경우에는 0.06mm의 홀장을 두 겹으로 겹쳐서 조성한 이른바 겹장이기 때문에 ‘0.12mm, 겹장’의 종이두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後期 佛書들의 종이두께는 ‘0.06mm, 홀장’ 또는 ‘0.12mm, 겹장’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朝鮮初期 寺刹本(연번 8)의 평균 적인 종이두께는 ‘0.0475mm’에 불과하고, 실제로 ‘연번 10’의 『禪源諸詮集都序』와 ‘연번 11’의 『涵虛得通和尚顯正論』의 종이두께는 ‘0.04mm, 홀장’에 불과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연번 12’의 『六經合部』의 경우에도 그 종이두께는 ‘0.05mm, 홀장’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朝鮮初期 寺刹本の 종이두께는 ‘0.04~0.05mm, 홀장’으로 高麗後期 寺刹本の 종이두께(0.07mm, 홀장)보다 훨씬 얇은 종이임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자료인 『達磨大師觀心論一卷』의 종이두께는 ‘楮紙 0.06~0.12mm, 홀장. 藁精紙 0.10~0.16mm, 홀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위의 高麗後期 寺刹本の 종이 형태 중 ‘홀장’이라는 특징이 同一하고, 楮紙의 종이두께는 좀 더 良質의 두툼한 종이임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朝鮮初期 寺刹本の 종이두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⑦ 백천사 소장 『達磨大師觀心論一卷』을 인쇄한 종이의 ‘발촉수’ 및 ‘발끈폭’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cm內 발 촉수는 ‘楮紙 17촉, 藁精紙 13촉’으로 實測되고 있다. 이들 종이의 세로 발끈폭은 ‘楮紙 3.1cm 또는 3.4cm, 藁精紙 不明’으로 計測되었다.

60) 다만 藁精紙들의 발끈폭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표 4> 백천사 소장 「達磨大師觀心論一卷」 및 高麗後期·朝鮮初期 목판본 등의 종이두께 등⁶¹⁾

연번	書名 등	刊行年度	종이 두께	종이 製造方法
1	1335년 刊記 「達磨大師觀心論一卷」(百泉寺 所藏)	1335	楮紙: 0.06~0.12mm 藁精紙: 平均 0.13mm	홀장 ⁶²⁾
2	『大方廣圓覺略疏注經』卷上(百泉寺 所藏)	[高麗 14世紀]	0.06~0.09mm	홀장
3	高麗本 『詳校慈悲道場懺法』卷1, 2(百泉寺 所藏)	[14世紀初]	0.06mm	홀장
4	德興本 『六祖壇經』(百泉寺 所藏)	1300	0.06mm	홀장
5	鎮兵大藏經: ①『대방광불화엄경』 권59, ②『유가사지론』 권45, ③『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④『보살다비니비바사』 권2, ⑤『제경요집』, ⑥『대반야바라밀경』	[1012] ⁶³⁾ ~ 1232 以前	0.12mm	겹장
6	『直指』(藏書閣 所藏 木版本: 鷲巖寺 刊)	1378	0.06mm	홀장
7	乾統2年 刊記 『藥師經』(藏書閣 所藏)	1102	0.06mm	홀장
8	<朝鮮> 朝鮮初期 寺刹本の 종이두께	1392 ~	0.04~0.055mm (0.0475mm: 평균)	不明[홀장]
9	朝鮮初期 官本(冊紙)의 종이두께	1392 ~	0.09~0.15mm	不明[겹장]
10	1493년 刊記 『禪源諸詮集都序』(법성선원 所藏)	1493	0.04mm	홀장
11	『涵虛得通和尚顯正論』(通度寺 瑞雲庵 所藏)	[朝鮮初期]	0.04mm	홀장
12	『六經合部』(陝川 法然寺 所藏)	1488(成宗19)	약 0.05mm	홀장

이와 같은 「관심론」을 인쇄한 바탕종이의 발촉수와 발끈폭에 관한 데이터의 문제를 더욱 상세하게考究하기 위하여, 高麗後期 및 朝鮮初期 佛典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동시에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번 3~6’에 제시된 4종의 12~14세기 고려시대 간행 佛典의 바탕종이에 나타나는 발촉수는 ‘17촉’으로 「관심론」 楮紙의 발촉수와 同一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다.⁶⁴⁾ 이와 같이 고려 後期 종이의 특징은 ‘0.06mm(홀장) 또는 0.12mm(겹장)의 楮紙, 발촉수 17촉’이라는 普遍性을 지니고 있음을 특히 注目할 수 있다.

61) ① 연번2: 김성수, “백천사 소장 「대방광원각약소주경」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75집(2018. 9), 165, 172-174, 參照. ② 연번 3-7: 김성수, “새로 발견된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73집(2018. 3), 150, 參照. ③ 연번 8-9: 정선영, “朝鮮初期 冊紙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 181, 參照. ④ 연번 10: 경상남도, 「2018년 제2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창원: 경남 가야사연구보존추진단, 2018. 6), 44-46. ⑤ 연번 11: 경상남도, 「2018년 제1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창원: 경남 가야사연구보존추진단, 2018. 3), 179-180. ⑥ 연번 12: 경상남도, 「2017년 제3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창원: 경남 가야사연구보존추진단, 2017. 11), 78-82.

62) 실제로 지금도 韓紙를 뜰 때, 외발로 뜬 축축한 종이(濕紙) 2張을 반대 방향으로 겹쳐서 1장의 두꺼운 종이를造成하면 곧 ‘겹장’이라 한다. 濕地 1張만으로 종이를 만들면 ‘홀장’이라 한다. 2012년 9월에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제14회 원주한지문화제”에서 韓紙 匠人이 종이를 직접 뜨는 과정에서, 濕紙를 두 장으로 포개어서 종이를 뜬 사례(<http://blog.naver.com/traveloisoo/100181780817>)가 있다. 홀장은 종이를 빛에 비추어 보면 그 섬유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남. 겹장은, 홀장 2張을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덧붙였기 때문에, 그 섬유질의 文樣이나 그 흐름이 반대방향으로 중첩되어 있음이 확인됨.

63) 鎮兵大藏經(高麗 初雕大藏經)을 인쇄한 종이는, 1012년(顯宗 2) 2월 淸州 行宮에서의 ‘大藏經 板刻 祈告’ 이후, 바로 還都하여 대장경의 조조가 착수되었다고 보이나, 鎮兵大藏經을 간행한 년도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 祈告의 시기를 그 최초의 인쇄시기로 간주하였음.

64) 「觀心論」에서는, 대량인쇄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13촉’의 藁精紙가 일부 混入되어 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표 5> 백전사 소장 「達磨大師觀心論一卷」 및 고려·조선 시대 종이의 발촉수 및 발끈폭⁶⁵⁾

연번	書名 등	간행년도	발촉수 ⁶⁶⁾	발끈폭 ⁶⁷⁾
1	「達磨大師觀心論一卷」(百泉寺 所藏)	1335年	楮紙: 17촉 藥精紙: 13촉	楮紙: 3.1cm, 3.4cm 藥精紙: 不明
2	「大方廣圓覺略疏註經」卷上(百泉寺 所藏)	[高麗 14世紀 推定]	12~16촉 (종이마다 다름)	2.0~3.5cm (종이마다 다름)
3	「詳校慈悲懺法」(百泉寺 所藏)	[14世紀初]	17촉	2.5cm
4	「六祖壇經」(百泉寺 所藏)	1300年	17촉	2.5cm, 2.8cm 混在
5	「直指」(藏書閣 所藏 木版本: 鷲巖寺 刊)	1378年	17촉	1.5cm
6	乾統2年 刊記 「藥師經」(藏書閣 所藏)	1102年	17촉	不明
7	〈朝鮮〉太祖~太宗年間 종이	1392-1418	12~15촉	2.3cm
8	世宗年間 종이	1418-1450	21~24촉	1.7cm
9	文宗~成宗年間 종이	1450-1494	15~18촉	1.7~1.8cm
10	「禪源諸詮集都序」(법성선원 所藏)	1493	13촉	2.0cm
11	「涵虛得通和尚顯正論」(通度寺 瑞雲庵 所藏)	[朝鮮初期]	16촉	2.2cm
12	「六經合部」(陝川 法然寺 所藏)	1488(成宗19)	15촉	2.0cm

한편 「관심론」 바탕종이의 발끈폭은 楮紙의 경우 ‘3.1cm’, 또는 ‘3.4cm’임은 이미 살펴보았다. <표 5>의 ‘연번 2~6’에 보이는 고려 後期 寺刹本 종이의 발끈폭은 ‘1.5cm~3.5cm’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관심론」 바탕종이의 발끈폭은 위 <표 5> ‘연번 2’에 제시된 14세기 추정 「大方廣圓覺略疏註經」 바탕종이의 발끈폭과 어느 정도 類似함을 확인할 수 있다.⁶⁸⁾

다른 한편으로, <표 5>에 제시된 조선시대의 종이는 위의 고려 후기 사찰본에 나타나는 발촉수 및 발끈폭의 데이터와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이고 있다. 즉, 조선 건국의 시기(연번 7)의 종이 발촉수

65) <표 4>의 ① 연번 3~6, 7~9: 김성수, “새로 발견된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73집(2018. 3), 151. 参照. ② 연번 10: 경상남도, 「2018년 제2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창원: 경남 가야사연구보원추진단, 2018. 6.), 44-46. ③ 연번 11: 2018년 10월, 筆者의 직접 實測 수치임. ④ 연번 12: 경상남도, 「2018년 제1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창원: 경남 가야사연구보원추진단, 2018. 3), 179-180. ⑤ 연번 13: 경상남도, 「2017년 제3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창원: 경남 가야사연구보원추진단, 2017. 11), 78-82. 参照.

66) 발촉수: ‘종이 3cm 이내에 발 촉의 수’를 측정한 수치. 韓紙 종이를 뜯(抄紙) 때, 물속에 분해되어 떠있는 섬유를 한 겹으로 걸러내기 위하여, 아주 얇고 가늘다한(細) 대나무 쪽을 수백 개 이상 엮어 종이를 뜨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를 ‘발(簾(럼): 「天工開物」, 簾(책): 「林園十六志」 등)이라 한다(남권희, ‘고문서 종이의 형태,’ “초조대장경 종이 및 장정 분석 결과보고서,”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백서」, (서울: 高麗大藏經研究所, 2014), 100, 102. 참고).

67) 발끈폭의 수치가 두 가지 이상 나타나는 현상은, 발끈폭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경우의 사례를 의미함. 1933년 미국의 Dard Hunter는 중국·한국·일본·인도 등 동아시아 지역의 종지와 종이 제조과정을 관찰한 후 여러 권의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그 중 하나인 *Papermaking*에서 한국의 종이 및 제지과정을 설명하였다. Hunter는 한국에서 16세기 이후의 종이를 수백 장 관찰한 결과, ‘발끈폭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Dard Hunter, *Papermaking*, 2nd ed.,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3), 96.)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닥종이(楮紙)의 생산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추정하게 하여 준다(남권희, ‘韓紙 제조 과정 및 특징,’ “초조대장경 종이 및 장정 분석 결과보고서,”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백서」, 101, 105의 脚註. 參考.).

68) 이와 같이 발끈폭의 데이터가 다양한 이유는 전국에 散在된 여러 造紙所에서 사용되는 발끈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는 '12~15쪽'으로, 고려시대의 종이 보다 그 발촉수가 좀 더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世宗年間의 종이 발촉수는 '21~24쪽'으로, 고려 후기의 그것보다 많이 촘촘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다가 '연번 9'의 文宗 ~ 成宗 시대 종이는 그 발촉수에서는 '15~18쪽'으로, 고려 후기 사찰본의 '17쪽'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 발끈폭은 '1.7~1.8 cm'로 고려 후기 사찰본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1335년에 간행된 백천사 소장『達磨大師觀心論一卷』은 고려시대에 인쇄된 冊임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백천사 소장『達磨大師觀心論一卷』'의 製冊 假綴의 紙捻 방식이 고려시대 固有의 四綴 紙捻임을 특히 注目하고, 인쇄된 종이의 紙質이 고려시대 종이의 특징(종이두께 0.06mm 이상의 楮紙, 발촉수 17쪽) 등을 유지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⁶⁹⁾ 그러므로 이 책은 高麗 後期(14世紀 後期)에 인쇄된 高麗本이라고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4. 結 論

이상의 본론에서는 百泉寺에서 소장하고 있는 1335년 刊記의『達磨大師觀心論一卷』에 관하여 논술하였다. 이제 본론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達磨大師觀心論』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관심론」은 '마음(心)을 살피는 방법'에 대한 禪宗의 綱要書로서, 14세기의 고려인들은 이 책을 '중국 禪宗의 初祖인 達磨大師가 마음법(心法)을 說한 語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 「觀心論」의 내용은, 佛道(부처의 가르침)의 要點을 묻는 慧可의 질문에 대하여, 達磨는 '마음은 萬法의 근본이며,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서 생긴 것임에, 마음을 깨치기만(了心) 하면 萬行이 具備됨'을 전제한다. 그리하여 '마음을 깨닫기(了心) 위해서는, 우선 그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비추어서 覺觀을 밝게 하고, 三毒心を 없애기 위해서는 이를 三聚淨戒로 돌려야 하며, 六賊을 육바라밀(六波羅蜜)로 전환시키면, 곧바로 佛道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 要旨임을 파악하였다.

3) 百泉寺 소장 1335년 刊記『達磨大師觀心論一卷』의 跋文에서는, '대번에 깨달음(頓悟)을 닦아 부처의 경지(佛地)에 들어가는 데에는 이 책만 한 것이 없다'라 하여, 그 간행의 意味를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14세기 前期의 高麗人들은 이 책을 이른바 '마음을 깨닫기 위한 禪宗의 핵심 綱要書'

69) 위와 같이, 百泉寺本을 인쇄한 종이에서 그 '발촉수'와 '발끈폭' 및 '종이두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결국 종이를 만드는 工房이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起因하는 것이고, 또한 대량인쇄를 위하여 到處에 散在하는 工房에서 製造된 종이를 한꺼번에 收集하고, 그 당시의 品質基準이라 할 수 있는 종이두께 '0.06mm 이상'의 楮紙 및 藁精紙들을 總動員하여 그 인쇄에 임하였던 결과에서 起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實査 대상인『達磨大師觀心論一卷』은 그 板刻(1335년)이 완료되자마자, 고려 당시의 여러 在家結社團體를 비롯하여 修禪結社와 白蓮結社 등의 諸結社團體들 및 餘他の 禪僧들과 在家信者들의 엄청난 需要에 대응하기 위하여, 超大規模의 대량 인쇄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제3장에서는 百泉寺 소장 『達磨大師觀心論一卷』의 形態書誌 사항 등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논술했다. 그 결과,

1) 百泉寺本の 製冊에 있어서 그 假綴의 방법이 四綴紙捻法임이 확인되었다. 이 방법은 高麗後期 線裝本에 나타나는 獨特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책은 高麗時代 14世紀에 인쇄·製本된 高麗本임이 立證된다.

2) 이 책 木版의 간행 시기 및 장소는 ‘元統三年乙亥(1335) 正月 日 鷄林府開板’으로, ‘1335年’에 지금의 경주 지역인 ‘鷄林府’에서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 책은 雞林府 官衙의 고위 관료를 비롯한 在家信者들이 舍心하여 誓願하고, 그 主催가 되어 직접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意義가 있다. 따라서 이 책은 在家修行者(俗人)를 비롯하여 出家修行者 등 全國에 廣宣流布하기 위하여 大量印刷된 책 중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인쇄상태는 後刷本이라고 錯覺할 정도로 그 字痕이 어느 정도 무디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假綴에는 ‘四綴紙捻法’이라는 高麗後期 線裝本 製冊의 特性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14世紀末(1392년 이전)에 대량인쇄된 高麗本 중의 한 冊임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고려시대의 佛典은 그 인쇄의 바탕종이는 일반적으로 質 좋은 楮紙(순수한 닥종이)에만 인쇄되었음에 반하여, 이 책에는 藁精紙(뽕짚이 섞인 닥종이)까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4세기 후기의 고려 시대에 大量印刷된 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이 책 본문의 版本 상에 나타나는 특징은, ① 그 ‘張次의 표시’ 사항에서 ‘丈’으로 表記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고려 鎮兵大藏經(初雕大藏經)에 나타나는 특징과 동일하다. ② 고려 定宗(945-949 在位)의 이름(諱)인 ‘堯’字가 포함된 ‘燒·饒·遶’자의 대부분 글자의 마지막 劃을 缺劃避諱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百泉寺本 『達磨大師觀心論一卷』을 인쇄한 종이두께는 ‘楮紙 0.06~0.12mm, 糞精紙 平均 0.13mm, 糞精紙’이며, 종이의 발촉수(3cm當)는 ‘楮紙 17촉, 糞精紙는 13촉’으로 實測되었다. 즉, 고려시대 寺刹本 종이의 일반적인 두께 ‘0.06mm, 糞精紙’보다 조금 더 넉넉한 두께의 楮紙가 主流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반면에 朝鮮初期 寺刹本の 종이두께 ‘0.045mm, 糞精紙’와는 確然한 差別을 보임으로써, 百泉寺本 『達磨大師觀心論』을 인쇄한 종이는 고려시대의 종이라고 확인된다. 게다가 百泉寺本을 인쇄한 종이의 발촉수는 ‘楮紙 17촉’이고, 그 발끈폭은 ‘3.1cm, 또는 3.4cm’임을 實測하였다. 이에 비하여 고려시대 寺刹本の 일반적인 발촉수는 ‘17촉’이고 그 발끈폭의 일반적인 수치는 ‘2.0~3.5cm, 또는 ‘종이마다 다름’의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朝鮮初期 寺刹本の 발촉수는 ‘太祖~太宗年間 12~15촉’·‘世宗年間 21~24촉’이기 때문에, 百泉寺本の 그것과는 相異함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朝鮮初期 寺刹本에 관한 발끈폭의 수치는 ‘1.7~2.3cm’ 정도로, 이 또한 百泉寺本の 발끈폭의 수치와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百泉寺本을 인쇄한 종이는 ‘고려시대의 14世紀 後期에 散在된 多數의 종이 工房에서 製造된 종이들을 一時에 수집하고, 고려 당시 종이두께의 기준(0.06mm)을 上廻하는

楮紙들을 選別하고, 모자라는 종이는 불가피하게 藁精紙를 活用한 것'이라고 推定할 수 있었다.

요컨대, 本考에서는 百泉寺 소장 「達磨大師觀心論一卷」에 관하여, 이 책을 인쇄한 '종이의 두께(楮紙 0.06~0.12mm, 홀장)' 및 그 '발촉수(17촉)'와 '발끈폭(3.1cm, 또는 3.4cm)' 등에 대하여, 고려후기 및 조선초기의 여러 인쇄본 자료의 그것과 비교 검증함으로써, 이 책의 인쇄에 사용된 종이의 제작시기가 고려시대임을 밝혔다. 그리하여 이 책은 14세기 후기의 고려시대에 간행된 것이라는 일차적인 검증의 論據를 마련하였다. 향후 高麗時代 佛典에 관한 형태서지학적인 연구 및 그 데이터가 보다 많이 축적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信憑性도 이울러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이 책의 假綴 형태가 '四綴紙捻'이라는 고려 特有의 製冊法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책 바탕종이의 紙質上에 나타나는 종이두께 및 발촉수 등을 비롯하여 그 假綴法(四綴紙捻) 등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으로 보아, 이 책은 高麗時代 14世紀 後期 무렵에 인쇄된 稀貴本이라고 糾明할 수 있다. 그러므로 百泉寺 소장 「達磨大師觀心論一卷」은 향후 국가문화재로 昇格되어도 無妨할 고려의 貴重한 文化遺産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 「2018년 제2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창원: 경남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2018. 6. 44-46.
- 김성수, “백천사 소장 「육조대사 법보단경」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67집(2016. 9). 45-78.
- 김성수, “새로 발견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73집(2018. 3). 131-155.
- 김성수, “백천사 소장 「대방광원각약소주경」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75집(2018. 9). 145-178.
- 김호귀 編譯, 「達摩語錄」, 서울: 정우서적, 2012.
- 남권희, ‘고문서 종이의 형태.’ “초조대장경 종이 및 장정 분석 결과보고서.”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백서』, 서울: 高麗大藏經研究所, 2014. 100-125.
-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小室六門」, 『大正新脩大藏經』 第48卷 諸宗部五, 東京: 大正新脩大藏經刊行會, 昭和51(1976). 365-376.
- 妙峰 漢譯, 「達磨觀心論」, 서울: 비움과소통, 2012.
- 百泉寺 所藏, 「達磨大師觀心論一卷」.
- 百泉寺 所藏,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
- 百泉寺 所藏,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百泉寺 所藏. 「六曹大師法寶壇經」.

신규탁. 「圭峰宗密과 法性敎學」. 서울: 올리브그린, 2013.

이부키 아츠시(伊吹敦) 著. 최연식 譯. 「중국 禪의 역사」. 서울: 씨·아이·알, 2011.

이승철. 「우리 한지」. 서울: 현암사, 2002.

정선영. “朝鮮初期 冊紙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창간호(1986). 177-212.

鄭性本. 「禪의 歷史와 思想」. 서울: 불교시대사, 1999.

Dard Hunter. *PaperMaking*. 2nd ed.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3. 再引用.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kcheon-sa Temple possession. *DaebanggwangWongagYagsojuGyeong*.

Baekcheon-sa Temple possession. *Dalma-Daesa Gwansimnon ilgweon*.

Baekcheon-sa Temple possession. *Sanggyojeongbon Jabidoryang Chambeop*.

Baekcheon-sa Temple possession. *YukjoDaesa BeopboDangyeong*.

Daegungsinsoodaejanggyeongganhanghwei. 1976. Sosilyugmoon. *Daegungsinsoodaejanggyeong* V.48, 365-376. Tokyo: Daegungsinsoodaejanggyeongganhanghwei.

Ibuki Azsi. Choi, Yeansik. 2011. *History of Chinese Zen*. Seoul: C·I·R.

Kim, Ho Kyi. 2012. *Quotation of Dalma*. Seoul: Jeongwooseojuk.

Kim, Sung Soo. 2016. “A Bibliographic Research on YukjoDaesa BeopboDangyeong Held at Baekcheon-sa Templ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7: 45-78.

Kim, Sung Soo. 2018. “A Bibliographic Research on the DaebanggwangWongagYagsojuGyeong Stored at Baekcheon Templ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5: 145-178.

Kim, Sung Soo. 2018. “A Bibliographic Research on the newly discovered Sanggyojeongbon Jabidoryang Chambeop.”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3: 131-155.

Kyongsangnamdo. 2018. *Conference materials of a subcommittee on movable cultural assets in 2018*, 44-46. Changwon: Kyongsangnamdo.

Lee, Seung Cheol. 2002. *Wooli Hanji*. Seoul: Hynamsa.

Myobong. 2012. *Dalmagyansimlon*. Seoul: biungyosotong.

Nam, Kwon-Hee. 2014. ‘Paper figure of Ancient Document.’ “The Result Report of Paper and Bound on ChojodaeJanggyeong.” *WhiteBook of Restroration · Publication on ChojodaeJanggyeong*, 100-125. Seoul: Koreadaejanggyeong- yenguso.

Shin, Gyutak. 2013. *KyubongJongmil & Byeobseongkyohak*. Seoul: OliveGreen.